

다산포럼



최기숙
연세대 문과대학 교수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에 대하여

‘바라봄’은 눈과 몸으로 하는 100%의 진술이다. 포커페이스는 그래서 무표정이 아니라 감정의 표백이며 거짓말이다. 뒤늦게 제 얼굴을 찾으려 해도 이미 ‘퍼스나’(persona, 가면)가 되었기 때문에 되찾기 어렵다. 아기가 웅얼이를 거쳐 말을 배우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표정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 표정과 눈빛은 이미 신체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표정과 눈빛은 의사소통의 문법 구조에 포함되어 있다. 가면을 된 얼굴은 그 사람이 가면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증명서다. 스스로는 감춘 것인데, 관계 속에서 그것은 타자를 경유하여, 자기진술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가면화(얼굴의 가면 되·퍼스나의 과정)에 관여한 공조자이다. 본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관광 명소 같은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면을 저마다의 카메라에 담는다. 눈으로 보고 카메라에 담고, 다시 꺼내 보지 않는다. 다시 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성스레 밀줄 그은 책들처럼, 카메라에는 보지 않는 사진들로 가

득하다. 누군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는 나의 시선이 찍혔다고 느낄 때가 있다. 누군가 찍어 준 내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 원치 않는 사진이 나왔을 때, 다시 찍어 달라고 부탁해 보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찍힌 사진이 관계의 평범한 표정이 아니었을까. 나이 들수록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수많은 일을 겪고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난 뒤에, 얼굴이 담(淡)과 백(白), 정(靜)을 지킬 수 있게 스스로를 돌보아야 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미셀 푸코가 ‘담론과 진실’(오트르망·심세광·전혜리 옮김, 동녘, 2017)에서 탐구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저작 ‘악마는 존재한다’(디에고 마네티 역음, 안소근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9)에서 언급된 ‘파레시아’(Parresia)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뜻한다. 원래는 ‘모든 것을 말하기’란 뜻의 그리스어로,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솔직하게 말하기, 진실을 말하기 등으로 번역된다. 말이 갖은 수단으로 임기유변을 다해도 얼굴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있다.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진

실을 말하는 거울’이 우리 앞에 있다. 얼굴이 짓는 표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생각하려고 한다. 잘 나이 들기 위해,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 모습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의 자취가 아니라, 그 눈동자에서 약탈과 지배나 비굴한 회피와 아첨의 눈빛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고 투명하게 통과한 평온하고도 강한 에너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그녀는 자신의 고락을 좋은 에너지로 전환하는 노하우를 찾는 것이 분명하다. 레비나스는 ‘얼굴을 본다는 것은 세계를 말하는 것’(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문예출판사, 2009. 300쪽에서 재인용)이라고 했다. 용은 ‘자기에게로 가는 길은 아주 고통스럽고 충격적이다’(‘환상 해석’, 정병진 옮김, 부클북스, 2018. 97쪽)라고 했다. 우리의 얼굴은 타인을 위해 내어준 자선이다. 미디어의 시각 이미지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없음·무위(無爲)·진공묘유(眞空妙有)라는 아시아의 오래된 진리값에 대해 사유하면서, 타인과 나의 만남이 구성하는 시선의 풍부함, 그 마중점의 미학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 보려고 한다. 그것이 우리의 얼굴, 눈빛, 모습, 관계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社說

한전공대 개교 차질 없도록 모두가 힘 모아야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과 관련 전남도의회에 이어 나주시의회가 재정 지원 동의안을 가결했다. 과도한 자원 부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대학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나주시의회는 잇그제 나주시가 제출한 1662억 원 규모의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을 심의해 발전 기금 1000억 원과 연구수 소 시설 부지 매입비 331억 원 등에 대해 가결했다. 나머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331억 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상황 등을 검토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회는 전남도가 한전공대 발전 기금으로 2022년부터 10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나주시, 한국전력은 조만간 ‘재정 지원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양 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 형편에 비해 지자체의 부담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지원 규모를 먼저 결정하는 데 대한 부담도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2022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응적인 결단으로 일단된다. 이제 남은 일은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을 지향하는 한전공대 설립에는 7000억 원 인력의 초기 비용과 연간 600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가 시책이기도 한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지자체, 한전, 지역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하면서 범정부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민생 외면한 채 정쟁만 할 것인가

4월 임시국회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 달 7일 회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생은 외면한 채 갈수록 치열한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러다가는 이번 임시국회도 아무 소득 없이 그야말로 빈손으로 끝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민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여야 대치가 더욱 격해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場外)로 나가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고 대야 전면 투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간의 대치 전선이 첨예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 또한 경쟁적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여야 대치 속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은 좀처럼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

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등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주 52시간제 제도 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관한 각당의 입장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한국당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더욱 문제인 것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장외 투쟁에 나선 뜻을 시사한 점이다. 장외 투쟁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회에서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쓰던 극단적인 방법이다. 한국당이 장외에까지 나선 것은 정부 여당의 독성을 인정한다 해도 민생을 내팽개친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교단에서

육아 시간과 솔방울



김진우
일신중 교감

만든 여러 작품들이 걸려있다. 오랫동안 이 수순의 터치를 걸어 놓고 보면서 나이드는 심신을 아이처럼 되돌아볼 생각이다. 꽃을 좋아하는 은결에게 할미꽃, 튤립, 다육 식물 화분을 선물했더니 절절한 연필 편지를 엄마 편에 보내왔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보고 싶어서 초등학교 교문에서 뚝깎은 은결이를 만나고 있다. 직장과 가정의 안정적 양립,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7월부터 ‘육아 시간 확대’ 등이 시행되었다. 특별 휴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최대 24개월이며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일찍 퇴근 등 하루 2시간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교육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은 학생들의 학습 지도, 생활 지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 시간 시행 목적에 맞게 학교장이 대상 교원들과 협의하여 승낙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녀 돌봄 휴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공식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병원 진료 동행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이다. 이 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

일)이며 1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러한 제도는 더 확대되고 적용 직종이나 범위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출생한 아이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일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가 병행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제도가 그렇듯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드러난다. 육아 시간은 육아 휴직과는 달리 유연한 시간 단축 근무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쓸 수 없다.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교사가 많은 학교의 경우 담임 교사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대놓고 시행하는 제도가 그렇듯 교사와 교사들 간의 갈등이나 업무 공백도 우려하는 실정이다. 육아 시간을 취지대로 실제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가 금년 들어 각 학교별 육아 시간 현황을 조사해 갔다.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느 의지로 보인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종족 번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햇볕을 엄청 좋아해

서 극양수(極陽樹)에 속하는 소나무는 20여 년이 지나야 솔방울을 맺는데 토질이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더 일찍 솔방울이 떨어진다고 한다. 대기 오염이나 공해가 심한 도심의 소나무, 바위틈을 비집고 힘들게 자리 잡은 소나무는 솔방울 크기는 작아지고 개체수는 많아진다고 한다. 갑자기 솔방울이 늘어나는 소나무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징표라고 한다. 감나무 주변에 약간의 소금을 뿌리면 감이 잘 열리고, 낙엽송 밑동에 상처를 내면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도 종족 번식의 경이로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인간은 반대다. 해마다 교실이 비어간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 썼다는 말도 있고, 인디언들의 지혜에서 나온 속담이라는 설도 있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하기까지 한 말이다. 이제는 이 문장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어렵다. 안전한 등하교,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체계적인 건강 관리, 대학 입학 제도, 일자리 창출 등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국가가 필요하다’고.

기고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 전남



문채우
목포대 교수·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장

신재생 에너지 백서에 의하면 전남은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에 대한 이론적 잠재량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해상풍력 30.7%, 태양광 12.2% 등 우리나라 재생 에너지 보물 창고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분야 신규 투자 규모 중 재생 에너지 비중이 66.7% 도달할 것을 보면 미래 성장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깨어아 보배’라고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주민 소득과 산업 육성을 연결시켜야 그 가치가 확인된다. 전남에서는 5GW급 도심 발전소, 20개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영농형, 염전형, 조합형 태양광 발전소 등 지역 적용형으로 확산시켜도 민의 소득 증대와 연계시키고 있다. 해상 풍력의 경우 서남해 2.5GW 단지 조성을 통하여 조선 해양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조류 발전은 실험적 실증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385MW 조류 발전 단지도 추진하여 수주 물량 감소로 힘들어하는 조선 해양 산업의 대체 산업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275개의 유인도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은 에너지 자립성 구축 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리적 특성, 재생 에너지 자원 분포, 인구 규모 등 다양한 사례의 마이크로 그리드가 가사도, 삼마도, 백아도, 혈도, 거차도, 상대도 등에 적용되었다. 이 패키지 모델은 베트남에 시범 사업으로 적용되어 해외 수출까지 성공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진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개방형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 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되기도 한다. 재생 에너지원과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요구되는 전방 산업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후방 산업도 중요하다. 재생 에너지 자원을 연결해 주는 전력선 구축, 제주도와 같이 원격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차세대 송전 방식인 HVDC 전력선, 빌딩이나 마을에 적용되는 LVDC 배전 선로 등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남은 DC산업의 최적지이다. 특히 G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신안 지역 전력 계통망 병목 현상 해소를 지원하고 재생 에너지 전용 154kV 송전선과 변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력 기저재 기업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나주 혁신 지방 산업단에는 고효율 전력 설비 신뢰성 평가 센터,

지능형 전력 기저재 시험 평가 센터, EV·ESS 이차 전지 재사용 시험 연구 센터 등이 설립되어 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이 산업과 연결하여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 산업은 대규모 전력 기저재 생산 기지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실 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에너지 저장 용량과 대형 운송 기기에 사용되는 수소 특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울산에 이어 우리나라 부생 수소 생산량 2위를 차지하는 여수 산단을 기반으로 인근 지역에 수소 시범 도시를 조성하고 수소 생산부터 시험, 인증,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실증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소재와 부품 기업이 집중된 동부권은 수소 특화 산단을 조성하여 수소 생산과 연료 전지 생산 기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남은 재생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이자 한전 공대가 끌어가는 에너지 신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無等鼓

지난해 봄, 고규홍 나무 칼럼니스트에게 물었다.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어떤 나무를 봐야 하는지?” 그는 ‘목련’이라고 답했다. 4월말부터 5월초 사이에 목련을 보러 가면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한 그 역시 목련과 깊은 인연이 있다. 20여 년 전 기자를 그만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수목원에 머무는 때다. 12월에 핀 ‘리틀 쟈’(태산목)이라는 목련을 만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가 1996년 101세로 세상을 떠나자 천리포 수목마당에 이 목련을 심어 아침마다 ‘굿모닝 맘’이라고 문안 인사를 했다. 그 역시 타계한 지 10년이 지난 2012년 4월, 수목원 내 태산목(리틀 쟈) 아래에 수목장으로 안장됐다. 수목원 중앙에 자리한 ‘민병갈 흉상 좌우에는 그가 잠든 ‘리틀 쟈’과 그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라스베리 편’이 나란히 심어져 있다. 생전에 한번 만나지 못해 아쉬운 ‘큰 인물’ 민병갈. 한국을 사랑했고 목련을 좋아했던 그의 향기가 목련과 함께 퍼지고 있는 것만 같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민병갈의 목련 사랑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